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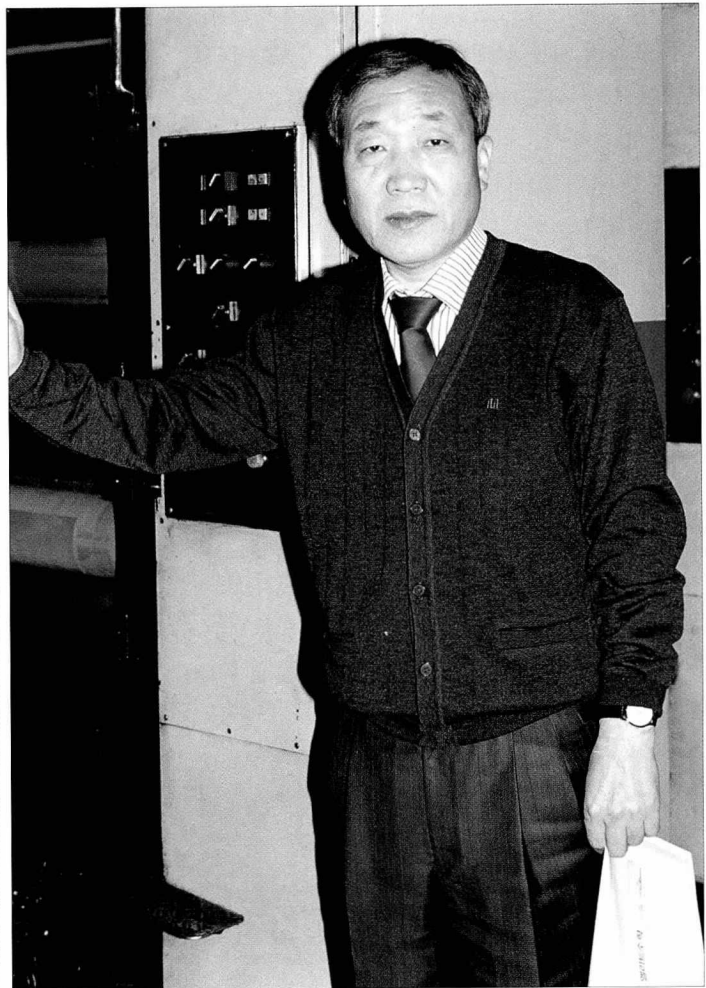
우리문화 김동춘 사장

지역사회 발전 기여 대통령 상 받기

우리문화 김동춘 사장(56세). 그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에서 상업용 운전기 두 대를 가동하는 인쇄업체의 대표다. 30여년을 인쇄밖에 모르며 살아온 전형적인 인쇄인. 그러나 그가 회사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물론 회사경영에 지장이 있을 만큼 다른 일에 빠져 있는 건 아니지만 밖의 일에 더 열심이다.

특이한 건 밖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소위 돈 버는 일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 것. 주로 봉사활동과 국가 사회발전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참여하는 단체는 무려 15곳에 이른다. 모두 봉사나 사회발전을 위해 조직된 단체들이다. 그래서 그는 공휴일이나 토요일 오후, 일요일에도 회사에 나온다.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하기에 그럴 땐 혼자서 회사 일을 챙긴다.

“10여년 쯤 되었을 겁니다. 우연한 기회에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나라 발전과 남북문제, 소외계층의 생활을 접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라는



아래. 마포구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있는 김동춘 사장





“오늘의 우리문화를 일구어 낸 것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한 건 아닙니다. 직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봉사하고 베푸는 삶은 행복하다고 했던가.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의 얼굴은 환하고 편안해 보였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사회발전과 불우이웃을 돕는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사회·봉사단체 15곳 참여

그러다보니 지금은 15곳에 이르는 각종 단체와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이같은 공로로 김 사장은 지난 연말 노무현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으며, 아름다운 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환경운동에 적극 참여해 환경보호운동본부로부터 환경봉사대상을 받기도 했다.

“저는 분명 인쇄인입니다. 사회에 나와 처음으로 시작한 일이 ‘인쇄’였고 지금도 인쇄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각종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그분들에게 나름대로 인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쇄의 역사에서부터 첨단화된 인쇄기술을 설명하면 인쇄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을 금세 느껴요. 이것 또한 ‘인쇄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보람도 느낍니다.”

김 사장이 주로 활동하는 곳은 서울시 마포구다. 그래서 지금은 자신의 거주지인 도화동을 비롯한 마포구는 골목구석구석까지 훤히 꿰고 있다. 평통 마포구수석부회장, 도화동 방위협의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 마포구부회장, 마포구 청소년선도위원회부회장, 새마을운동 마포구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불우이웃을 찾아 돌보거나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지난해 9월 마포구 평통 회원들과 함께 연탄 5만장과 소금 1500포를 가지고 북한의 개성을 방문했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한다. 식량도 부족하고 추위에 떠는 북녘 동포들을 직접 보면서 분단의 아픔이 이토록 큰가 싶어 가슴이 메어졌다는 것.

김 사장은 1월5일부터 8일까지 연변조선족 동포들을 위

로하기 위해 위문품을 가지고 방문했었는데 고마워하는 그들을 보면서 ‘한 핏줄은 역시 다르다’는 점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관내 불우이웃을 찾는 일에도 열심이다.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 쌀과 연탄 등을 전달하는가 하면 그들의 애로를 파악해 관공서 등을 찾아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한다.

회사를 운영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전개하는데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시간이 중요한데 내가 건강하니 문제가 없다.

1979년 인쇄와 인연

김 사장이 인쇄와 인연을 맺은 건 1979년이다. 군에서 전역한 후 곧바로 인쇄업체의 제판실에 취직을 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1년 남짓이었다고 한다. 유년기에 넉넉하지 못했던 가정 환경도 영향을 끼쳤지만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기업가로 성공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렸지만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소규모 제판업체를 차렸다. 자본이 많지 않았기에 직원 두명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납품을 맞췄다. 그의 성실성은 금세 주문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다보니 회사가 점점 커져갔다.

그러나 1980년 중반을 전후하여 편집용 컴퓨터와 고급 스캐너가 등장하면서 그가 운영하는 제판업체는 전환이나 폐업이냐의 귀로에 서게 된다.

결국 그는 인쇄업체를 운영하기로 결심한다. 1986년 마포에 조그만 공장을 구해 오프셋인쇄기를 들여왔다. 경험은 부족했지만 이곳에서 ‘고객만족’이라는 슬로건으로 적기납품과 고품질을 실현, 길지 않은 시간에 탄탄한 인쇄업체로 발전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상업용 운전기도



왼쪽부터 시계방향, 군부대 위문차 방문. 개성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 연변조선족 위문방문.



도입했다.

이어 2001년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에 부지를 마련, 공장을 신축하고 이전했다. 그리고 윤전인쇄 전문 업체로 거듭났다. 현재 우리문화에는 도시바운전기와 하리스 운전기가 가동되고 있다. 도시바운전기는 컬러, 하리스운전기는 단색을 주로 인쇄한다. 곧 고급 기종의 운전기를 도입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덤핑수주 심각” 업계 공멸 초래할 것

그는 인쇄업계가 물량은 부족한 반면 시설이 넘쳐나 덤핑수주가 만연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모두가 화염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느낌이란다. 이런 상황이 몇 년 더 지속되면 살아남을 업체가 얼마나 될지 걱정이라고 말한다. 김 사장은 그래서 좋은 책도 내고 자체 인쇄물량을 확보할 겸 출판사를 직접 운영할 생각에 몇 차례 시도를 해보았지만 쉽지 않았다고.

우리문화는 초창기부터 단부제를 고집하고 있다. “물론 일감도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들을 2부제로 운영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단부제로 운영하면서 큰 어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 사장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작정이란다.

김 사장은 또 앞으로 자신이 회사에서 은퇴를 할 때 근로자들이 회사를 경영하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털어놴다. 1남 1녀를 두고 있지만 다른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도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자신도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늘의 우리문화를 일구어 낸 것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한 건 아닙니다. 직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봉사하고 배우는 삶은 행복하다고 했던가.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의 얼굴은 환하고 편안해 보였다.

유창준국장 chang@print.or.kr